

2021년 KATE SIG 학술대회를 마치며,

존경하는 KATE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어제로 KATE SIG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KATE SIG 학술대회 한 주간 내내 모처럼 뽀뽀 될 반가운 분들과 새롭게 뽀뽀 될 KATE회원님들로 인해 마음이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학술대회가 주는 긴박감과 흥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 zoom행사를 통해 기초발표 때부터 반갑고 많은 훌륭한 분들을 뽀뽀 되었고, 학술대회 준비팀으로부터 전날까지의 등록자 수치 보고를 듣고 매우 반가워하며, 유쾌했던 경품행사를 climax로 학술대회를 마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많은 분들로부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발표를 계속 더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결국 유례없이 학술대회를 2월 9일(화), 어제까지 3일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일간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다 마치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SIG학술대회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서 행복했고, 훌륭한 발표자 분들의 준비된, 알찬 발표를 보고 들으니 머리의 빈공간이 채워지는 듯했고, 지적 즐거움으로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래서 학술대회를 하게 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많은 준비로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의 방향과 해법”을 심도 있게 일갈해주신 중앙대 김혜영교수님, 기초발표자로 모시길 정말 잘 했다 싶습니다. 또 다른 기초발표자로서 한반도 다른 한쪽 영어교육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사진과 더불어 하나하나씩 정겹게 소개해 주신 이철 국가안보전략책임연구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zoom 기초발표 시간, 갈수록 좀 화면 아래쪽 참여자 숫자가 급상승하여, 보는 이들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 발표자이신 편집위원장 한남대 허근교수님은 연구윤리를 그토록 품격있는 역양과 정갈한 음성으로 발표해 주시다니 놀라웠습니다. 분과 Round Table시간에는 고매하신 좌장들께서 자신의 분과발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소개해주시려는 열정을 보여주셨고, 분과발표 내용이 매우 다채롭고, 풍성했습니다. 혹 시간을 더 갖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분과는 내년 SIG학술대회 때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한 번의 학술대회 일정 연기, 이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예약 취소(호텔, 식사, 교통편 등)와 변경, 그리고 새로운 계획 등에도 놀라운 무던함으로 잘 견뎌내 주시며 꼼꼼하게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전주대 최선희부회장님, 아마 최대로 많았을 12개 분과 좌장님들과 소통하며 분과 구성에 힘을 쏟아주신 경상대 김은정 연구개발부회장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온라인 발표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각 분과 발표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느라 힘들었을 프로그램담당 서울교대 장은영교수님, 약 70개의 발표 원고를 예쁘게 다듬어 출판해 주신 군산대 장소영교수님, 모든 발표자 동영상 모음과 웹상의 재현을 위해 온라인 담당을 맡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전주대 이제영교수님, 특유의 짹짹한 성품으로 부드럽고 경쾌하

게 경품 사회를 봐주신 총무이사 영남대 홍광희 총무님, 수혜자의 마음에 꼭 들어 할 경품 list를 만들어 경품행사 참여 예상 인원을 토요일 점심시간인데도 97명이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 재무이신 공주대 배지영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헌신해 주신 unsung heroine 동아대 박정연교수님, 그리고 홈페이지 로그인 문제로 참여자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신다고 수고해 주신 전남대 최문홍교수님, 홈페이지의 분과 소개 웹페이지 설계에 기여해주신 춘천교대 윤택남교수님 등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학술대회 마지막 경품 행사까지 함께 해주신 이효웅 전임회장님, 최연희 전임회장님, 이영식 전임회장님, 김해동 직전 전임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싶은 후학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 경품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기뻐하시면서도 전임회장님들께서 서로 양보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인품도 훌륭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처럼의 후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셔서 아쉬워하셨을 전임 회장님들께, 저희들도 많이 뵙고 싶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윤천 시인이 “멀리 있어도 사랑이다”고 읊조린 것이 생각납니다. 이번 SIG에 참여하시지 못한 회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며, 다음 학술대회 때는 꼭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에는 제가 KATE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학술대회를 겪을 때마다 새삼 깨닫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것은 KATE라기 보다 KATE로 인해 연결된 멋진 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속한 코로나19에도 지치지 마시고, 건강히 잘 버텨주시고, 다가오는 7월 1-3일 국제학술대회 때 꼭 뵙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8개의 영어교육관련 학회가 연합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10일
KATE 29대 회장 강후동드림